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아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통장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웅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8월 1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법은 여래의 몸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만덕을 갖춘 보배이다

〈대승기신론소〉

법회 안내

광도사 (02)979-5183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경전읽기 매주 금 오전10시

옷산 불광사 (02)359-5367

거사림법회 매월 둘째주 일 오전10시30분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대구 보현사(053)254-4966

신장기도 매월 1일
입묘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
관음재일 매월 24일

부산 해광정사(051)866-7772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충북한마음선원(0446)877-0462

장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주 일 오전 10시30분
한마음요잔공부 화 오전10시30분
정진법회 매월 초하루 보름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 ·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인천 연화정사 (032)873-1059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4시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비룡 노스님이 50년전 수행한 금강산 마하연을 저멀리 손짓하고 있다. 96세 노구에 죽장을 짚고 허위허위 달려온 노스님의 애틋한 그리움이 휴전선 철조망을 넘어 손에 닿을듯한 금강산으로 퍼져가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저 구름아래 마하연이…"

비룡스님 북쪽 금강산 바라보며 '할'

"백두산 호랑이가 울고
금강산 사슴이 춤을 춘다."

광복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8일, 비룡(95세, 월정사 조실)선사가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를 찾아 금강산을 향해 게송을 읊고 할(喝)을 했다.

쩌렁쩌렁한 선사의 일갈을 산천은 알아들었을까? 내리던 폭우가 멈추고 구름이 걷히더니 금강산 자락이 하나 둘 자태를 내보였다.

금강산 마하연에서 정진하던 스님은 해방되던 그 해에 행각의 길을 떠났다. 그리고 이날 50년만에 첫 금강산 나들이를 했다. 시간이 흐르고 공부가 깊어지면서 초발심 수행터가 생각나건만 갈 수 없는 땅이었기에 아예 휴전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하연(摩訶衍).

의상스님이 부석사를 지은 뒤 창건(676년)한 화엄십찰의 하나로 사(寺)나 암(庵)이 붙지 않은 유일한 절. 비로봉과 일출봉 사이에 자리한 금강산의 중심으로 동쪽에 금강산 최대의 석불인 묘길상이 있는 불교성지다.

금강산이란 명칭은 〈화엄경〉에 '해동에 보살이 사는 금강산이 있다'는 데서 연유한다. 그래서일까. 금강산에만 오르면 모두가 홀가를 했다.

해방되던 해에도 마하연 선실에는 20여명의 수좌가 화두를 잡고 있었다. 이 가운데 몇몇 스님은 해방후 밤길을 헤쳐 남으로 왔으나 모두가 입적하고 말았다. 다만 조계종 전 종정 서암스님만이 비룡 노스님과 반세기 넘는 도반의 우애를 나누고 있다.

"해방이 되고서 불교정화가 시작됐어. 그렇지만 잘 됐다고만 볼 수는 없지. 욕심밖에 남은 것이 없으니 말이야. 한마디로 싸움의 연속이었어."

'불가(佛家), 속가(俗家)할 것없이 예의범절이 무너진 것이 더욱 안타깝다'며 노스님은 지난 50년을 회고한다.

그러면서 "부처님법이 흥해야 나라도 흥하고 통일이 된다"며 "불자라면 모름지기 계를 지키고 화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룡스님이 마하연 도감시절, 이곳 통일전망대가 있는 고성에 사찰 소유의 농지가 있었다. 해마다 가을이면 겨울 양식을 받으러 스님들이 이곳으로 내려왔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출발하면 고성에서 점심을 먹었으니 한나절 거리다.

건봉사, 낙산사, 명주사에서 각각 하룻밤씩 묵으며 걷다보면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고 계시는 은사 한암스님을 뵐 수가 있었던 초발심 수행터 마하연.

노스님은 다시한번 힘끗 비로봉을 스쳐보시더니 이내 외면해 버리고 만다. 그리고선 옆에 있던 어린 아이의 손을 잡으며 웃어보인다.

"너 보러 여기왔어."

"부처님 법이 흥해야 나라 흥하고 통일도 된다"

통일전망대=이준엽 기자

"고려대장경은 신수장경의 모체"

日경도 불교대 아미타경등 봉안…동국대서 기증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보 32호인 해인사판 고려대장경 인출본 아미타경 1권과 모조반야심경 1관이 일본 경도불교대 도서관에 봉안하게 돼 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자매대학인 일본 경도불교대에 고려대장경을 전달하는 봉정식을 지난달 31일 정각원에서 봉행했다. 이날 봉정식에는 일본 경도불교대 다끼하시 고지학장을 비롯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교수, 직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봉정식은 지난 5월 학술교류차 방일했던 이사장 녹원스님에게 경도불교대측이 일본 신수대장경의 모체가 되는 고려대장경을 신축도서관에 봉안하기를 희망해옴에 따라 이루어진 것. 고려대장경은 97년 완공되는 1백만권 소장규모의 경도불교대 신축도서관에 보관된다.

광복 50주년을 맞는 올해 특별히 일본 경도불교대학장이 직접 와서 신수대장경의 모체인 고려대장경을 모셔가 불교대 도서관에 봉안하는 일은 한일 불교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볼 때 매우 의미있는 일로 주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월주스님 8 · 15성명

"중도로 통일 앞당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8 · 15 광복 50주년 및 분단 반세기를 맞아 성명서를 통해 "분단 5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과 사회는 지나친 이기주의, 분열주의에 대해 깊이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성명서에서 "민족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의 염원을 달성해야 하는 소명을 안고 있는 남북 당국은 '7 · 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부처님의 중도와 화쟁사상을 기본으로 화해와 신뢰를 회복, 교류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앞당기자"고 촉구했다.〈성명서 요지 3면〉

일본불교 국내 법인화 움직임

문체부 "신청 늘고 있지만 허가는 없다"

왜색(倭色)불교의 국내 상륙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자리잡은 일본불교단체들의 법인체구성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체부 종무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에 들어 일본불교계의 계파인 종교단체들이 국내에 어느 정도 조직기반을 갖추면 종교법인을 설립키 위해 국내인을 앞세우는 등 편법으로 실체를 위장해 신청서를 접수시키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대부분 외국종교단체들이 편법으로 법인화 작업을 추진, 법인허가는 해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종교의 국내활동을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교묘한 방법으로 국내 활동 거점을 확보하는 외국종교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는 한 '옴진리교' 같이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사이비 종교의 근절도 어려울 것이란게 종교학자들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2면〉

본사 사령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한형조(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논설위원 위촉

이윤호
대구주재 기자

〈8월1일자〉

목어

"누구의 돈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금이나 은이나 그밖의 재물을 주웠을 때는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외쳐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제것이라 할 경우 그 생긴 모양을 물어 사실임이 밝혀지면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나서는 사람이 없을때는 7일동안 매일 소리쳐 찾아야 한다.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날 때는 국왕 · 대신이나 고을의 장관에게 말겨야 한다. 국왕 · 대신 · 장관도 그 주인을 못 찾으면 이것을 바른일과 진리를 지키는데 써야 한다.

'정직'을 일깨워주는 〈장법염처경〉의 말씀이다. 비록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전직 대통령 4천억원 가 · 차명 예금계좌 보유설'이 국민을 우울케한 요즘 이 가르침을 한번쯤 되새겨 보면 어떨까. 그런가. 금융실명제 실시 2년에 아직도 10조5천억원이라는 거액이 차명으로 남아 있다니 다시금 곱씹어 볼만한 가르침이다.

실명제란 무엇인가.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 맑고 투명한 사회를 이루자는 제도 아닌가. 이런 뜻을 외면하고 가 · 차명으로 예금된 거액의 검은돈은 바로 우리사회의 건강지수와 무관치 않다.

비양심의 주인공. 그들은 결코 서민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실이 고급계층의 이런 도덕성 상실에 있다면 지나칠까. 〈장법염처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미안하지만 가 · 차명계좌의 돈은 공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그리고 광복 50년을 맞은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법구경〉의 말씀을 새겨보자.

'사람들은 집착한 물건 때문에 근심한다. 제몸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재산이 제 것일까.'

광복 50주년 특집 : 불교 50년 움직인 1백人 12면
불교 50대 사건 13면
해방둥이 불자에 듣는다 11면
카드한장으로 신행관리 15면

KIA 기아자동차
'94, '95 2년 연속 환경관리 모범업체

엄청난 프레임이 숨어있다!

프레임은 안전의 기본,
어떤 승용차에도 이런 프레임은 없습니다.

프레임은 바로 차체의 골격! 충돌시 내부에서 차체를 버텨줌으로써 찌그러짐·비틀림을 최소화하여 탑승자를 1차적으로 보호해주므로 프레임이야말로 안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충돌 안전성·충격 흡수력이 탁월한 2중 구조의 특수 강철 프레임으로 특히 오프로드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높은 고갯길이나 험한 산길도 올 봄에는 스포티지로 달려보십시오. 이제껏 보던 것보다 훨씬 싱그럽고 생동감 넘치는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스포티지를 본격 RV(Recreational Vehicle)라 부르는가?

RV란? 출퇴근, 비즈니스, 레저 등 차동차에 대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다목적 자동차로, 우리나라에서는 스포티지가 최초의 RV 고유모델입니다. 세계 유명 모터쇼에서도 선진 메이커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RV모델을 선보이는 등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충돌안전성이 뛰어난 고장력강판 ■ 사륜구동 최초 리어 ABS 브레이크(ABS 패키지 옵션)
■ 2차 충격을 막아주는 T형 버팀쇠 ■ 고급 승용차용 더블 위시본식 독립 현가장치(전륜)
■ 운전자를 보호하는 충격흡수식 핸들 ■ 도어 임팩트 바 및 논재밍 안전도어

■ 2중 구조의 특수 강철 프레임
스포티지의 프레임은 굵고 단단한 2중구조의 특수강철 프레임으로, 충돌 안전성 및 충격흡수성이 탁월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최대적으로 지켜줍니다

70%는 바다를 건너간다.
Sportage

기분 좋은 뉴스!
1200만원대 스포티지
• 2.0가솔린(SOHC) ₩12,000,000
• 2.0가솔린(DOHC) ₩12,600,000
• 2.2디젤 ₩12,370,000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